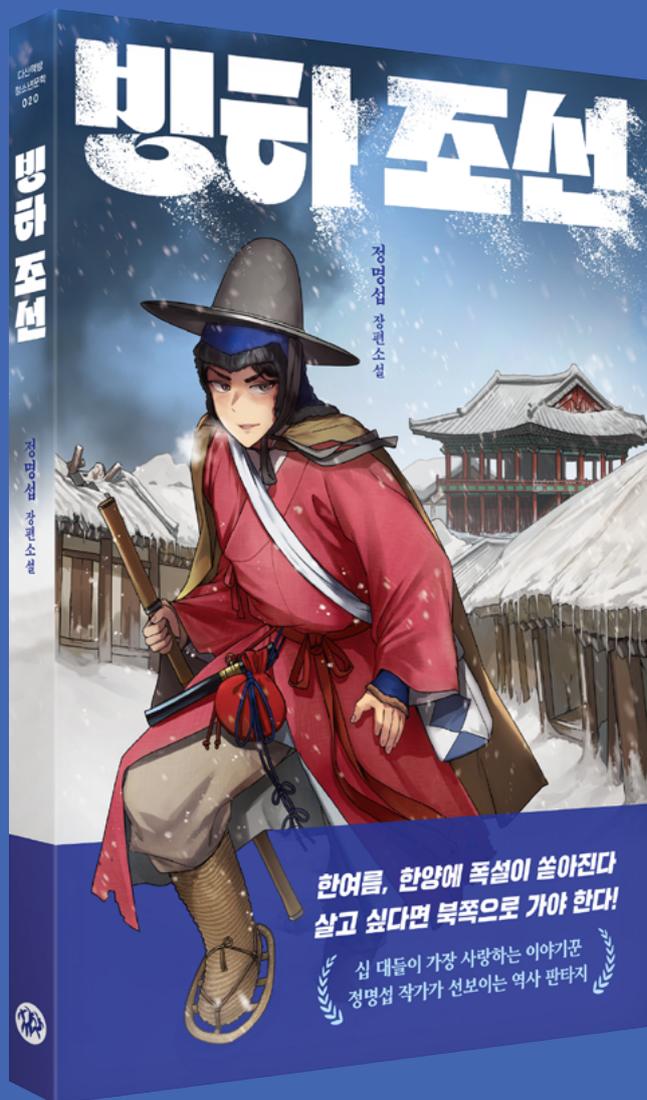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희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빙하 조선

정명섭 장편소설

주제어: 역사, 판타지, 모험, 재난, 빙하기

• 책 소개

주인공 화길은 아버지와 함께 한양의 소방관인 멸화군으로 일하고 있다. 어느 여름날, 한밤중에 큰불이 나서 멸화군 대원들이 급히 출동한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불이 잠잠해질때쯤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한여름에 내리는 눈이라니 다들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그 눈이 며칠째 이어지며 한양은 삼시간에 한겨울로 변한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어 죽고, 먹을 양식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서 한양은 생지옥이 되고 만다. 왕은 따뜻한 땅을 찾아 궁궐을 버리고 떠났다는 소문이 퍼지고, 곳곳에서 무당과 중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한다며 봉기를 일으켜 사회가 몹시 혼란스러워진다.

멸화군 대장인 화길의 아버지는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고 말겠다는 생각에 멸화군의 거처를 옮기려고 한다.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당장 먼 길을 떠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 그는 아들 화길을 불러 따뜻한 땅을 찾아 나서라는 임무를 준다. 아버지 곁을 떠난다는 게 두렵지만 멸화군 가족을 위해 화길은 또래인 부광과 함께 기꺼이 북쪽으로 떠난다. 과연 두 소년은 따뜻한 땅을 찾을 수 있을까?

• 학습 목표

- ①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
- ② 소설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배경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 ③ 소설의 소재로 활용된 자연현상을 현실과 연계하여 내면화할 수 있다.

•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독서 중 활동	한여름의 겨울 1. (사실적 읽기) 인물 정리하기 2. (추론적 읽기) 배경지식 익히기 3. (추론적 읽기) 작품 내용 추론하기
2		얼어붙은 강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
3		따뜻한 땅을 찾아서 1. (사실적 읽기) 경로에 따른 사건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배경지식을 토대로 내용 읽기 3. (비판적 읽기) 인물의 가치관 평가하기
4		새로운 세상에서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작품 내용 추론하기
5		북쪽으로 가는 길 1. (사실적 읽기) 경로에 따른 사건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작품 내용 추론하기 3. (창의적 읽기) 시대적 배경 학습하기
6		금구폭포 입구에서 1. (사실적 읽기) 인물 관계 파악하기 2. (사실적 읽기) 작품 내용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성장소설의 특징 파악하기
7		폭풍과 눈보라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인물 행위의 의도 및 심리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작품 내용 추론하기
8	독서 후 활동	이상기후에 관한 보드게임 만들기

1.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정리해 봅시다.

화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공. 멸화군 소속 대원이자 멸화군 대장의 아들. • 불붙은 지붕에 깔려 죽은 뻔한 위기를 겪은 후 불에 대한 공포증을 지니게 됨.
화길이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복춘이 아저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영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성창 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 다음 영상을 보고 조선시대 멸화군에 대해 알아보시다.



관련 영상: 조선시대 소방관 “멸화군”

<https://www.youtube.com/watch?v=xy24DSETtKc>

3.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왕이 성창 대군에게 사약을 보냈는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가하게 봉희나 즐기고 있을 때인가?”

“아직 어리시니 너무 나무라지 마소서.”

“하나밖에 없는 적장자가 저 모양이라니.”

임금이 혀를 차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지 영의정에게 물었다.

“선전관은 언제 떠났지?”

“성창 대군에게 보낸 선전관 말이옵니까?”

임금이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거리자 영의정이 대답했다.

“이틀 전에 떠났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군. 거기다 눈까지 내리니, 이거야 원.”

“특pecially 충성스러운 자를 뽑아서 보냈으니, 반드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임금이 처연한 말투로 얘기했다.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네.”

그러곤 여전히 웃고 떠드는 세자 쪽을 향해 바라보며 증얼거렸다.

“세자가 저리 미욱하지 않았다면 말이야. 어찌 되었든 조카에게 사약을 보내는 마음이 편치 않구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합니다, 전하.”

영의정이 고개를 조아리며 얘기하자 임금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제부터 내린 눈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쏟아지는 눈 사이로 임금의 한숨이 섞였다.

1.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 ① 계절에 맞지 않은 눈이 내리자 사람들은 혼돈에 빠졌다. (O / X)
- ② 화길이는 자신의 실수로 상관이 아저씨가 다쳤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지니고 있다. (O / X)
- ③ 화길이는 아버지와 함께 백두산의 따뜻한 곳을 찾으러 갔다. (O / X)
- ④ 살 곳을 잃은 멸화군 무리는 양화진으로 거처를 옮길 계획을 세웠다. (O / X)

2. 다음의 진행을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의도와 그 효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임금이 종친들을 데리고 따뜻한 곳으로 피난을 간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

화길이가 아버지가 성난 표정으로 묻자 복춘이 아저씨가 짙은 표정으로 답했다.

“옆집에 사는 무당이 귀뜸해 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지. 저런 헛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늘에서 밥이 떨어져? 쌀이 떨어져?”

호통을 친 아버지가 승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자 복춘이 아저씨가 종종걸음으로 따랐다.

<중략>

“자, 여러분! 종묘로 갑시다. 거기에 제사 때 바치는 제물들이 있을 겁니다. 산 사람도 죽어가는 판국에 제사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화길이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어떻게 저런 말을?”

그러자 복춘이 아저씨가 대꾸했다.

“나는 이해한다.”

“뭘요?”

“사흘 굶으면 담장 안 넘는 놈 없다고 했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종묘건 궁궐이건 무슨 소용이겠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인데 말이야.”

복춘이 아저씨의 말에 화길이가 아버지가 한소리를 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앞장서. 숙소로 돌아간다.”



화길이기도 슬쩍 자리에서 일어나 측간이 있는 뒤뜰 쪽으로 갔다. 그런데 상관이 아저씨가 할 얘기가 있다는 표정으로 슬며시 화길이를 따라왔다. 화길이는 걸음을 멈추고 상관이 아저씨를 돌아봤다. 상관이 아저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말했다.

“복춘이가 좀 이상한 거 같아.”

“어디가요?”

“말이 자꾸 거칠어지잖아. 예전에도 말이 많긴 했지만 위험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확실히 달라지긴 했어요.”

“내가 몇 번 따라나가 봤잖아. 근데 종종 혼자 사라지더라고. 어딜 가 봐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야. 지난번에는 쫓아가보니까 묘화라는 무당과 얘기하고 있었어.”

“묘화라면, 아까 말했던 그 무당이잖아요.”

“그래, 그 무당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한양에 불을 지르고 다니고 있어. 혹시 그 무당에게 넘어가서 우리들을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다급한 마음에 치고 나가던 화길이는 상관이 아저씨가 휘두른 몽둥이를 피하려다가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얼얼한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는데 상관이 아저씨가 도끼를 들고 다가왔다.

“아, 아저씨!”

“날 원망하지 마라. 이게 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길이니깐.”

상관이 아저씨의 눈이 광기에 번뜩였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화길이는 상관이 아저씨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상관이 아저씨가 두 손으로 도끼를 높이 치켜들고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끝인가 봐’ 하고 화길이가 눈을 질끈 감을 때였다. 낮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눈을 뜨자 뒷문으로 들어선 아버지가 보였다.

“아, 아버지!”

화길이가 아버지의 어깨에는 얼어붙은 생선 한 두름이 걸쳐져 있었다. 아버지의 등장에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눈길이 도끼를 치켜든 상관이 아저씨에게 쏠려 있었다.

“너, 이 새끼! 무슨 짓이야!”

화길이가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들어서 상관이 아저씨를 들이받아 버렸다.

지도 TIP

묘화와 내통한 사람이 복춘이가 아닌 상관이었음을 알게 된 후의 반응을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게 하면, 독자를 착각하게 한 후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 진행을 통해 작가가 의도한 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경로에 따라 발생한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움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서십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자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의주대로로 가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황주를 지나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남자를 만남. •
↓	
평양 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얼어붙은 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 다음 영상에서 제시한 조선시대 신분제도 붕괴의 원인을 <보기>의 내용과 관련지어 설명해봅시다.



관련 영상: 조선시대 양반과 노비는 한곳차이?
<https://youtu.be/F2GlnOWYAcU?feature=shared>

<보기>

“망건에 도포 차림이잖아. 글썽깨나 읽은 양반이라는 뜻이지. 귀걸이도 꽤 비싸 보이고 말이야.”

“그럼 망나니가 두목이고 양반이 부하란 말이네?”

화길이의 물음에 부광이가 쓴웃음을 지었다.

“눈이 내리기 전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었는데 말이야. 진짜 신발을 머리에 쓰고 모자를 발에 낀 꼴이네. 하긴, 추위와 배고픔 앞에서 신분이 무슨 소용이겠어.”

3. 여러분이 화길이나 부광이의 입장에 처한다면 두 사람 중 누구의 가치관을 가졌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힘이 강하고 잔인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네. 이런 세상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착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건 확실해.”

화길이가 중얼거렸다.

“그렇다고 악하게 살아남고 싶지는 않아.”

“살아남는 게 최선이고 좋은 일이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겠지.”

“그렇게 살아남는 게 무슨 의미겠어.”

화길이의 말에 부광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했다.

“살아남는 게 옳은 일이라면 그게 바로 의미가 되겠지.”

1. 작품에서 제시된 화길이의 능력을 말해봅시다.

2. 움막에서 경혜가 챙겨 나온 물건을 정리해 봅시다.

지도 TIP

사소한 내용도 중요한 소재로 재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꼼꼼하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다음 내용을 토대로 뒤의 내용을 추측해 봅시다.

“아무래도 화길이가 이름을 잘못 지은 모양이에요.”

“그게 뭐 소리냐?”

“이름에 불 火 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불이 나면 아주 환장하잖아요.”

“이놈아! 불 火가 아니라 될 化야.”

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화길이가 낄낄거렸고, 부광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죽음이 흔한 세상이 되긴 했으나,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화길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그러자 할머니가 잔잔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런데 몸신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떠나기 전에 말씀하셨네.”

“무슨 말씀어요?”

“조만간 누군가 찾아올 거라고 말이야. 이름에 될 化 자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손녀를 구해줄 것이라고 하였네. 그런데 자네가 정말 나타났어.”

1. 경로에 따라 화길이가 겪은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의주 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혜와 함께 설피를 만들다가 월화를 만남 •
↓	
작은 계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 성창 대군이 능력을 얻게 된 계기를 정리해 보고, 화길리와 같은 능력을 지닌 성창 대군이 화길리와 어떤 갈등을 빚게 될지 추측해 봅시다.

지도 TIP

화길리와 성창 대군이 지닌 동일한 능력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세요.

3. 다음에 제시된 단어 중 하나를 골라 그 특징을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 지자총통	• 남바위	• 석전
• 삼혈총(삼안총)	• 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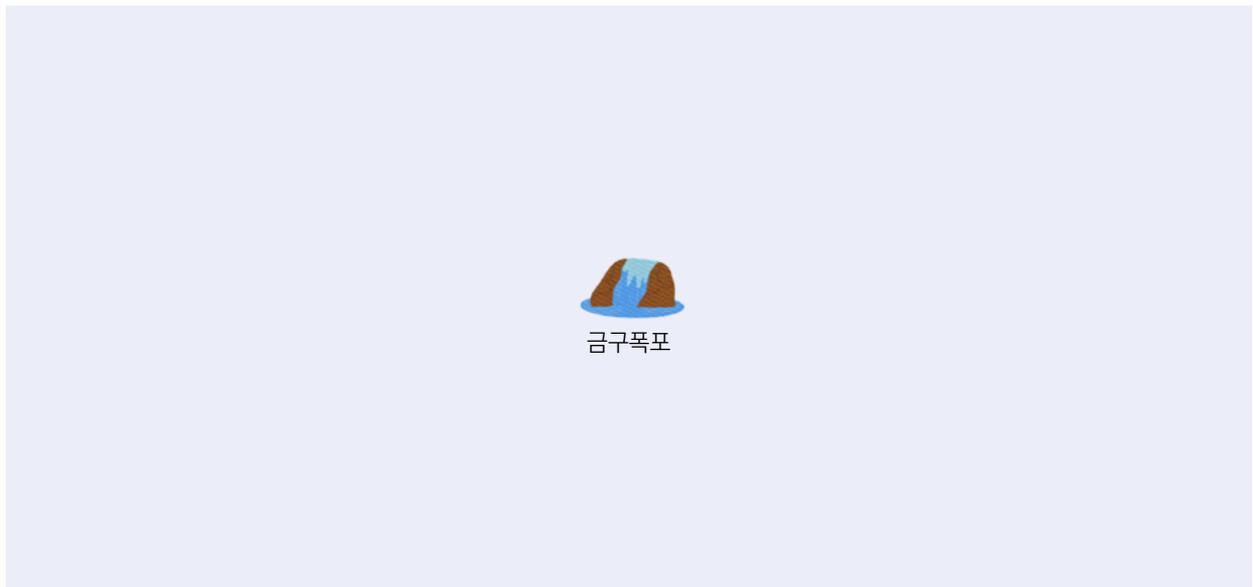
1. <보기>의 기호를 활용하여 인물들의 관계도를 그려봅시다.



지도 TIP

관계도 외에 인물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2. 눈썹퐁이 그친 후 월화와 화길이의 여정을 참고하여 따뜻한 곳까지의 약도를 그려봅시다.



지도 TIP

금구폭포, 촛대 모양의 바위 등 구체적 지명이나 자연물뿐만 아니라 계곡, 절벽 등의 풍경도 삽입하여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보기>를 참고하여 『빙하 조선』을 성장소설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보기>

성장소설은 일반적으로 어린 주인공이 자아를 의식하고 차츰 외부세계와의 접촉 또는 대결을 해 나가는 중에 그의 자아가 인간 세상의 삶의 법칙을 깨우쳐 세계 속에서 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장소설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지도 TIP

<보기>와 작품의 내용을 관련지어 설명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1. 성창 대군 무리와 타야산 무리를 한곳에 부른 화길이의 의도를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2. <보기>에서 드러난 성창 대군의 심리와 성격을 정리하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보기〉

눈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심호흡을 한 성창 대군이 눈을 감으며 말했다.

“부어라.”

그러자 얼음을 깨고 퍼온 물이 성창 대군의 머리 위에 부어졌다. 물은 상투부터 저고리를 입은 상체, 바지를 입은 다리까지 연이어 적시더니 눈 쌓인 바닥에 흘러내렸다. 추운 날씨 탓에 바닥은 금방 얼어붙고 말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춥다고 하거나 그대로 기절할 법한 상황이었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성창 대군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반면 맞은편에서 밧줄로 끄꽂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던 부하는 물세례를 당하자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면서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결박당한 채로 사방에서 밧줄이 당겨져 꼼짝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주변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오자 성창 대군이 외쳤다.

“한 번 더!”

맞은편의 부하가 털털 떨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다. 하지만 성창 대군은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았다.

“배신자는 죽음뿐이라고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공정하게 대결을 하는 것이다. 아니 그러냐?”

다른 이들이 꺾꺾거리며 비웃었다. 그때 두 번째 물이 부어졌다. 성창 대군은 이번에도 잘 버텼지만 부하는 비명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 상대방이 얼어 죽어가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던 성창 대군을 향해 마량이 달려왔다.

3.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서 각 인물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상상하며 친구들과 말해봅시다.

화길	
부광	
성창대군	
경혜	
월화	

지도 TIP

뒷이야기를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하되 지금까지의 이야기 전개를 바탕으로 할 것을 당부해 주세요.

1.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이상기후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빙하 조선』과의 관련성에 대해 말해봅시다.



관련 영상: 빙하기의 무서움을 그대로 표현한 자연재해의 명작

https://youtu.be/5-o_RPvq1NM?si=tUG4RcLMRUQXZWrd

2. 보드게임 만들기

[1단계] 이상기후 현상과 방지 대책 찾기

① 각국에서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을 20가지 이상 찾아봅시다.

번호	발생지역	내용
1	인도	2022년 4월 121년만에 역대급 폭염 발생(최고 기온 50도)
2	투발루	해수면 상승으로 30년 안에 물에 잠길 위기
		⋮

② 이상기후 방지 대책(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20가지 이상 찾아봅시다.

번호	내용
1	화석 연료를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교체
2	1997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채택
	⋮

[2단계] 게임판 만들기

- ① 총 45개의 칸을 만듭니다.
- ② 그중 40개 칸에 1단계에서 찾은 이상기후 현상과 이상기후 방지 대책을 무작위로 써넣습니다.
- ③ 각 칸의 보상과 벌칙을 정합니다.

지도 TIP

아래 <예>를 참고하여 형식을 맞춥니다. ‘어스’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화폐단위로, 적절한 화폐단위를 만들어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보상칸	벌칙칸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개선해 국제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30어스를 받으세요.	인도에서 역대급 폭염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0어스를 지불하세요.

④ 남은 5칸에 ‘황금카드’라고 쓰고, 황금카드를 제작합니다. 황금카드는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통해 보상 혹은 벌칙을 주거나 자리 바꾸기, 자산 바꾸기 등의 게임적인 요소를 포함한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약 30장을 제작하고, 2장 정도는 중복되어도 관계없습니다.

<예>	
실천가능한 행동의 예	게임적인 요소의 예
철저한 분리수거로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5어스를 받으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어스를 교환하세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 범칙금을 지불합니다. 10어스를 지불하세요.	[보관 사용 가능] 칸의 미션을 1회 무시합니다.

[3단계] 소품(주사위, 게임 말, 화폐) 제작하기

지도 TIP

화폐는 단위별로 제작합니다. (예: 100어스-10개, 50어스-20개, 20어스-30개, 10어스-50개, 5어스-80개)

[4단계] 게임하기

<게임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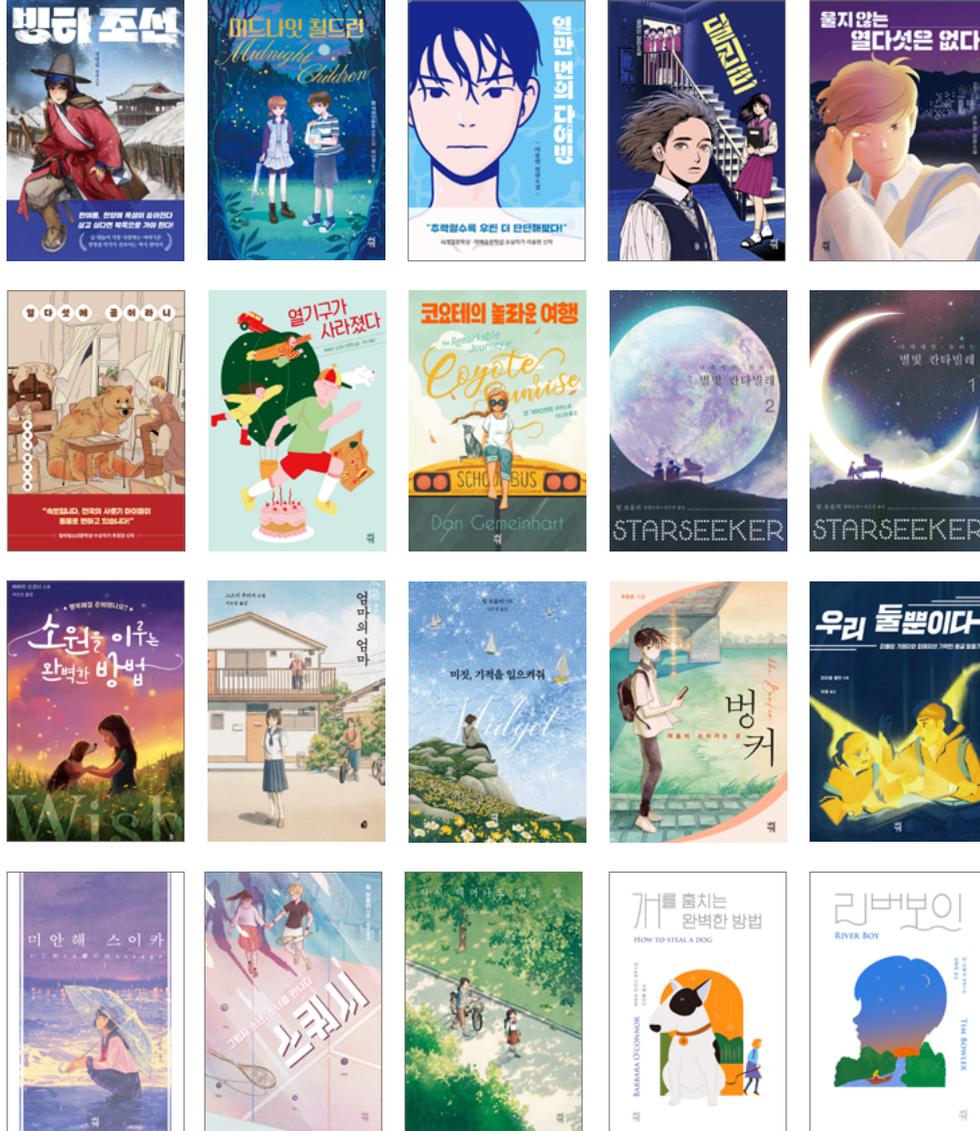
- ▶ 최초 각 참가자는 100어스 1개, 50어스 2개, 20어스 3개, 10어스 5개, 5어스 10개를 받습니다.
- ▶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수만큼 말을 이동시킵니다.
- ▶ 이동된 칸의 미션에 따라 보상이나 벌칙을 받습니다.
- ▶ 주사위를 각각 10번씩 굴릴 때까지 게임이 진행되며, 마지막 순서의 참가자가 10번째를 굴렸을 때 게임은 종료됩니다.
- ▶ 가장 많은 어스를 확보한 참가자가 승리합니다.

지도 TIP

규칙은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산책방 청소년문학

다산책방 청소년문학은 오늘날의 십 대가 마주한 고민과 시대를 넘어서는 질문을 이야기로 풀어낸 시리즈입니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고 읽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작품을 엄선해 선보입니다.



- | | |
|----------------------------------|--------------------------------|
| 20 빙하 조선 정명섭 장편소설 | 10 소원을 이루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 19 미드나잇 칠드런 댄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 09 엄마의 엄마 스즈키 루리카 장편소설 |
| 18 일만 번의 다이빙 이송현 장편소설 | 08 미짓, 기적을 일으켜줘 팀 보올러 장편소설 |
| 17 딜리트 설재인 장편소설 | 07 빙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추정경 장편소설 |
| 16 울지 않는 열다섯은 없다 손현주 장편소설 | 06 우리 둘뿐이다 마이클 콜먼 장편소설 |
| 15 열다섯에 곰이라니 추정경 장편소설 | 05 미안해 스이카 하야시 미카 장편소설 |
| 14 열기구가 사라졌다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04 스쿼시 팀 보올러 장편소설 |
| 13 코요테의 놀라운 여행 댄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 03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스즈키 루리카 장편소설 |
| 12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2 팀 보올러 장편소설 | 02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 11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1 팀 보올러 장편소설 | 01 리버보이 팀 보올러 장편소설 |